

국가등록 유형문화재

지코우지

위 치 고센시 히르노
지정 날짜 2012 년 2 월 23 일

지코우지 백산 기슭에 있는 조동종(일본 불교의 한 종파)의 오래된 절이다.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지만, 예로부터 백산 신앙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.

오에이 10 년(1403 년) 무렵, 남북조 시대의 무장 쿠스노기 마사나리의 손자인 케츠도노우쇼 에 의해 다시 번성했으며, 에도시대에는 니가타를 대표하는 조동종 사찰인 에치고의 네 사찰의 하나로 번영을 누렸다.

지코우지 절의 중심인 본당을 비롯해 북쪽에는 선 수행을 하는 선당과 승려들이 잠을 자는 기숙사, 남쪽에는 절의 부엌인 고후, 화장실인 토우스, 목욕탕인 요크스, 경전을 보관하는 창고인 경전이 있으며, 절의 정문인 산문에서 남북으로 뻗어있는 회랑은 본당, 고후, 선당 및 기숙사 의 토방으로 되어 있다.

이 건물들은 1755 년 화재로 소실된 후 다시 지어진 것으로, 본당은 1763 년, 고후 는 1759 년, 선당, 종료, 산문, 회랑, 경장은 에도시대 후기에 지어진 것이다.

현재도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, 니가타현 내에서도 회랑을 남기고 있는 조동종 사찰로는 드물게 주요 건물군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어 매우 귀중한 사찰이다.

본당, 후당, 선당 및 기숙사, 경전, 산문, 회랑 등 6 곳이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.

2024 년 10 월 고센시 월교육위원회